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육상필드에서 한국신기록을 달성한 정대광(가운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당구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남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육상 정대광 ‘한국 新’·당구 조경화 ‘3관왕’ 맹활약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 육상필드 포환·창던지기서 신기록…원반도 선전

전남, 1·3쿠션·단체전 금메달…사이클은 혼성전 2연패

광주·전남선수단이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한국신기록과 다관왕을 차지하는 등 목표 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는 3일 오후 5시 기준 금메달 49개, 은메달 53개, 동메달 36개를 획득, 종합 7만8046.80점으로 맹활약 중이다.

먼저 육상에서는 다양한 선수들의 기록 행진이 이어졌다. 김천천(한전KPS)·김지혜(한국광기술원) 시각장애 남매는 원반던지기에서 각각 32m16과 24m65의 기록으로 나란히 한국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한국신기록의 기준 기록은 김천천·김지

혜 남매가 지난해 동일 대회에서 세운 것이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처음 출전한 정대광(광주장애인육상연맹)도 남자 창던지기 F55(지체장애)에서 24m50으로 한국신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기존 기록(23m49)보다 1m 이상 먼 수치다. 이로써 정대광은 원반·포환·창 3개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고, 한국신기록 2개(포환, 창)를 달성하며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올해 3월 광주시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양궁

팀에 입단한 이승준 역시 금빛 시위를 선보였다. 그는 김란숙(한전KPS)과 함께 출전한 혼성 리커브 2인조 결승에서 경북(김재원·이지연)을 상대로 6-2 승리를 거뒀다.

광주시청 탁구팀은 금메달 4개를 추가했다. 박진철(광주시청)은 남자 단식 CLASS 2에서, 김정길(광주시청)은 남자 단식 CLASS 4에서, 서수연(광주시청)은 여자 단식 CLASS 2에서, 김성욱(광주시청)은 여자 단식 CLASS 7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금메달 27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33개를 획득하며 종합 6만4559.50점으로 선전 중이다.

먼저 당구 단체전에서는 조경화(한국농어촌공사), 김미순·박향자(전남장애인당구협회), 진점순(포스코인터내셔널)이 팀을 이뤄 여자 단체전 BIS/BTW(선수부)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여자 1쿠션 단식 BIW, 여자 3쿠션 단식 BIW 우승을 차지했던 조경화는 이로써 대회 3관왕을 달성했다. 또 전남 당구팀은 종합 3위에 올랐다.

육상과 사이클 종목에서도 전남 선수들의 금빛 질주가 이어졌다. 전남 육상의 간판 황상준(한국농어촌공사)은 남자 1500m DB(선수부) 경기에서 4분 22초 8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4

일 열리는 남자 10km 마라톤에서 금메달 3관왕에 도전한다.

사이클 혼성 도로 H팀 릴레이 13.5km(통합·선수부)에서는 박태규·허윤정(한국전력공사), 최준건(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성한(전남장애인사이클연맹)으로 구성된 전남 사이클팀이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유도에서는 국가대표 출신 윤상민(전남장애인유도협회)이 남자 -81kg J1(선수부) 결승에서 유효 1점과 절반 1개를 따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열린 남자 -95kg J2(선수부) 결승에서는 김용석(전남장애인유도협회)이 경북 이준희와의 접전 끝에 한판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25 광주 세계3쿠션당구월드컵 미디어데이’에서 국내 선수단이 당찬 포부를 밝힌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범열, 허정환, 최관현 광주당구연맹 부회장, 조명우, 박종규 광주당구연맹 회장, 최봄이, 박용훈 광주당구연맹 부회장, 김도현, 최완영, 김행직.

“세계 최정상급 3쿠션 선수들 꺾고 우승 차지할 것”

광주 세계3쿠션당구월드컵 출전 국내 선수들 출사표

조명우·김행직·최완영 등 7명 “차분히 플레이 집중”

“딕 아스퍼스 등 세계 최정상급 3쿠션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겠습니다.”

사상 최초 광주에서 열리는 ‘2025 광주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에 출전하는 국내 선수단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최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25 광주 세계3쿠션당구월드컵 미디어데이’에는 조명우(세계랭킹 2위·서울시청), 허정환(세계랭킹 11위·경남당구연맹), 김행직(세계랭킹 13위·전남·진도군청), 최완영(세계랭킹 119위·광주당구연맹), 이범열(시흥시체육회), 김도현(상동부설방통고 1년), 최봄이(김포시체육회) 등 7명의 선수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상 최초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를 맞아 국내 선수단의 각오와 목표 등을 듣고자 마련됐다.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은 세계랭킹 1위부터 14위까지의 톱랭커가 모두 출전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캐롬 3쿠션 당구 대회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꾸준히 한국에서 개최, 17번째를 맞은 이 대회가 광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캐롬당구연맹(UMB)·아시아캐롬당구연맹(ACBC)이 주최하고, 대한당구연맹(KBF)과 광주당구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20개국 1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우승 상금과 랭킹포인트를 노린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세계 4대 천왕’이라 불리는 프레데리크 쿠드롱(세계랭킹 9위·벨기에), 에디 맥스(세계랭킹 1위·벨기에), 토브슨 브루탈(세계랭킹 21위·스웨덴), 딕 아스퍼스(세계랭킹 3위·네덜란드)가 한국 팬들 앞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 국내 출전자 중 가장 랭킹이 높은 조명우는 “결승에서 딕 아스퍼스를 꺾고 우승해 보고 싶다”며 “항상 대회 중요한 길목에서 아스퍼스를 만나 진 적이 많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말했다.

안방에서 열리는 무대인 만큼 광주·전남 소속 선수들의 각오도 남달랐다. 김행직은 “올해 국제대회 우승이 없었기에 이번 대회를 통해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며 “최근 선수들의 실력이 상

향 평준화 돼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지만, 과거 중요한 대회에서 발목을 잡았던 아스퍼스 선수를 꺾고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완영도 “광주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후회 없이 재밌는 경기를 펼치고 싶다. 박종규 광주당구연맹 회장을 비롯한 임원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에 그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최근 대회를 앞두고 아침 9시부터 맨홀런을 진행했다. 꼭 결승까지 올라서 톱모델인 쿠드롱 선수를 이겨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베테랑 허정환 또한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노린다. 이 대회 통산 2회 우승자인 그는 국내 출전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음에도 꾸준함을 선보이고 있는 선수다.

허정환은 “선수 중 가장 형인데 지난 2023년 이후 월드컵 우승이 없다”며 “이번 대회에서 경쟁한 선수들을 꺾고 좋았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전했다.

최연소 출전자인 김도현은 “나이가 어려서 부담되는 건 없다. 젊음의 패기로 선배들을 제치고 우승하겠다”고 피력했다.

최봄이와 이범열 역시 “제 플레이에 집중해 국제대회에서 좋은 경험 쌓겠다”, “국제무대는 참가를 많이 못 했지만 16강 이상 진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각 언급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교통공사 김혜미·황수련·김민주 ‘태극마크’

유도 국제 1차 선발전 두각

10일 진천선수촌 합류 확정

이주연, -63kg급 ‘동메달’

광주교통공사 유도팀 김혜미, 황수련, 김민주가 ‘2025 순천만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맹활약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들은 오는 10일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내년 국제대회 준비에 나선다.

김혜미는 지난 2일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70kg급 결승에서 김지정(순천시청)을 꺾어 1차 한판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따냈다.

1회전 부전승으로 출발한 김혜미는 16강에서 정예담(용인대)에게 지도 3개 반칙승, 8강에서 김희주(용인대)에게 허리후리기 한판승을 거뒀다.

준결승에서는 양지영(동해시청)에게 지도 3개 반칙승을 얻어내며 결승에 올랐고, 마지막 경기에서도 화려한 한판승을 거두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황수련은 -52kg급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부전승으로 16강에 오른 황수련은 백지호(주산산업고)에게 지도 3개 반칙승, 8강 장예진(포항시청)에게 팔기로누워찍기 한판승을 기록했다. 이어 준결승에서는 김민정(경기대)을 몇걸이 유효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으나, 장세윤(KH필룩스)에게 안오금찍기 유효패를 당하며 2위에 머물렀다.

-78kg급에 출전한 김민주도 준우승을 거두며 국가대표에 발탁됐다.

김민주는 1회전 김아현(고창군청), 8강전 김유진(한국체대)을 각각 꺾어치기 한판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는 김지영(한국체대)을 지도 3개 반칙승으로 제쳤으나 결승에서 김주윤(동해시청)의 누르기 한판에 당하며 은메달을 건졌다.

같은팀 이주연은 -63kg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지만 국가대표 승선에 실패했다. 허슬미(안산시청), 양지인(광영여고)을 차례로 유효로 제압하며 준결승에 올랐으나 김지수(경북도청)에게 누르기 한판패를 당했다.

한편 대한유도회는 이날 대회를 마친 뒤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2026 국가대표 1차 합류 선수 총 36명을 확정했다. 대표팀 1차 합류 선수들은 진천 선수촌에 입촌해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아잔게임을 포함한 내년도 국제대회 준비에 나선다.

대한유도회는 향후 이번 대회(30점)와 2026 국가대표 2차 선발전(30점), 국제유도연맹(IJF) 세계랭킹(30점), 대표팀 지도자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평가(각 5점)를 합해 종합 점수 순위를 매긴 뒤 내년도 체급별 국가대표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교통공사 유도팀이 ‘2025 순천만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연 코치, 이주연, 김민주, 김혜미, 신대철 감독.